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음 6월 8일) 제20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무더위에 '폭폭'도, 긴급대책 마련

폭염 종합 T/F팀 가동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
 취약계층 방문 등 강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대응방안 논의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폭염 피해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19일 오후 4시 전북도청 상황실에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도 폭염 관련부서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관련 부서 및 시·군별 폭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관련 소관 부서와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폭염 종합대책 T/F팀 가동, 도내 무더위쉼터(4,795개소) 운영관리,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근로자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 도민행동요령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했다.

농작물과 가축보호 대책도 점검하는 등 도민의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응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도민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온난화로 인한 진드기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각종 매체를 활용한 예방수칙 홍보 및 도민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폭염 대책이 효율적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관별 도 관련부서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 중요성을 주문하고 도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폭염대응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1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19주년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박영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축하역을 자르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19돌... 창립 기념식 성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19주년을 축하드리며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지배배 어린이가 합창단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이 함께 부르는 여성경제인의 노래, 청렴서약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되었

으며, 송하진 도지사 등 도내 기관장 및 여성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모범여성경제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4개 업체가 도지사 표창을, 그 외 24개 업체가 전주, 익산, 군산시장, 완주군수상을 비롯한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999년 7월 창립하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실천창업강좌, 여성기업 창업자금 지원 등의 활동으로 여성 창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차세대

여성CEO 양성과정 및 여성CEO MBA 과정 진행, 공공구매관로 확대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도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구매성과를 거두고 정부합동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김진성 기자

여름철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

전북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도내 어린이집 21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급식위생 및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급식위생 분야는 시군 보육·위생부서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리원의 건강검진실시 여부,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시설안전, 화재사고 예방, 통학차량, 미세먼지 관리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공간 활성화' 노력 결실

올 상반기 전년보다
 이용객 대폭 상승
 '반나절 패키지' 운영
 체류형 공간 조성키로

'공간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올해 상반기(1~6월) 조리체험실(시투방)을 비롯해 홍보관과 한지 제조실 및 한지공예체험실 등 전당 주요시설에 대한 방문객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밝혔다.

전당은 올해 초 조각개편을 토대로 중·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기존 시설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당은 중복 업무를 없애고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직제 변경과 인적구성 재배치, 특히 전당 공간 활성화 업무를 중

점적으로 추진할 '공간운영팀'을 신설했다.

공간운영팀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고객지원 업무와 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전통문화 행사 기획, 공방 임대 및 대관업무 등 기존보다 강화된 공간 활성화 전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조리체험실인 '시투방'의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26건에 1173명의 체험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660명에 비해 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런 체험이 일회성이 아닌 재방문지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체험자 가운데 35%(9건·370명)

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전당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지제조와 한지공예체험도 지난해 4572명의 이용객이 체험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같은 기간 457명이 더 늘어난 5029명이 참여했다.

이용객이 증가하며 수입 역시 지난해 997만여원에서 올해는 1240만여원으로 25% 이상 신장했다. 홍보관과 공방의 경우도 올 상반기 각각 1만1886명과 735명으로 전년 1만 673명과 715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당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기존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 해설이 있는 홍보관 관람을 비롯해 조리체험, 한지 제조·공예체험, 전시·공연 등을 하나로 묶은 일명 '반나절 패키지 프로그램' (가제)을 운영, 전당을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송호철 기자

무주 2018 남대천 물축제!

불종은 부쥬! 물만남 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무주군 동아리공연	
	18:40		래시가드 패션쇼	메인무대
	19:00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20:00		영화상영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메인무대
	19:00		개막식	
	20:00		축하공연 [홍진영]	
20:40		불꽃놀이		
7월 29일 일요일	20:45		EDM 파티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메인무대
20:00		영화상영		